

오늘 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다 올린다

분회의 열여섯 차례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여부 관심

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6종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계획이어서 연말연시를 맞아 잠시 '휴전' 상태였던 정국의 긴장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5일 '패스트트랙 열차'에 제1동을 걸며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을 설 연휴 전까지 차례로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수사권 조정안의 주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남은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 수십년 만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과의 협의와 관련,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당과의 협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면 '4+1' 협의체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들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선거법, 공수처법과 달리 한국당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유치원 3법의 경우 총선을 앞둔 만큼 국민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고수할 경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4+1' 공조를 앞세워 회기 3~4일 짜리 '조끼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한국당의 저지선을 뚫고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6일에 이어 9일 또는 10일, 13일에 본회의를 여는 등 순차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당시 과반으로 무장한 '4+1' 대오 앞에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한국당은 이번에도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일단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

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보다는 민주당과의 협상 시도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에서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과 같은 극력 저지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총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 결정 등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일 것"이라며 "반대를 하더라도 결국 협상을 통해 처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이정희 출판기념회, 민주당 의원 등 참석 '성황'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정희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자신의 책 '에너지가 밥이고 일자리다'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송영길·홍영표 의원,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송갑석 의원, 백원우 민주당연구원 부원장, 이형석 최고위원, 김병내 남구청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백원우 부원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오면 표가 떨어진다"는 분



위기가 팽배했다"면서 "그때 이정희 후보자가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면서 설득해 1만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그 결과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전해철 의원, 김부겸 의원, 박광온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영상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남재 출판기념회...광주·전남 비전 발표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남재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이남재의 정면돌파'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저서 '이남재의 정면돌파'에서 자신의 생각, 지역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송갑석, 이계호, 손금주, 강훈식 현역 국회의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유근기 곡성군수, 5개



구청장 및 지지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섭 광주시장, 김부겸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기동민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축하 영상과 메시지를 보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檢,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2명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총출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약식 기소된 A 의원과 B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고 말했다.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A 의원은 "검찰이 제가 국회선진화법상의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출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중앙당창당대회에서 하태경 책임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요동치는 야권지형

한국당-새보수당 보수통합 기싸움...바른미래, 안철수에 러브콜

4·15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야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 7명의 의원과 함께 탈당한 유승민 의원은 5일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계기로 활로를 모색한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설 연휴 전 귀국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날 중 '보수 빅텐트'를 세워 안철수·유승민계를 모두 포섭한다는 전략이다. 유승민계가 떠난 바른미래당 역시 다른 야당과의 통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논의의 물리적 마

지보선이 1월 말~2월 초인 점을 고려하면 1월 한 달간 각 세력의 밀고 당기기와 이합집산이 거듭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보수통합을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우선 통합 대상은 새보수당이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화한 물밑 논의는 여전히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양측의 기 싸움만 가열되고 있다. 특히 유승민계는 한국당이 주도하는 '판'에 수동적으로 동참하는 식의 통합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유

승민계는 한국당과의 물밑 논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총선 준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앙당 창당 이후에도 오는 12일 총선을 비롯해 경북·제주·강원 시도당 창당을 계획 중이다.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컴백도 야권 정계개편의 핵심 변수다. 애초 안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복귀가 점쳐졌으나, 손학규 대표가 '돌아오면 당의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이 귀국 전후로 여러 인사와 상의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통합·연대·독자 세력화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후보 청문정국

내일부터 이틀간...여야 대립 속 국회 인준 관심

국회는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 특히 총리 후보자는 다룬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따른 여야의 격한 대립 국면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무난한 인준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인사 청문회가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임명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 한편, 야당의 '정치공세' 프레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 불발과 함께 임명 동의 표결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 간의 거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할 경우, '4+1' 공조에 따른 인준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박올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공 장** ▶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16552㎡(5007평) 건물 : 7077.93㎡(2141.1평) 울촌제1산업단지내 **감정가 55억5천3백만원 최저가 55억5천3백만원**
- 근린시설** ▶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89억6천7백만원**
- 근린시설** ▶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41억9천8백만원**
- 근린시설**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대 지** ▶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 99번지 토지 : 1749㎡(529.1평) **감정가 1억4천5백만원 최저가 1억4천5백만원**
- 아 파 트** ▶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 아 파 트** ▶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